

파도를 타봐!

Ride the Waves!

1장. 실현된 꿈

p.10~11

“알렉, 방금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혀봐!” 열세 살 엠마 스미스가 호주 북서 퀸즐



랜드의 마운트아이자에서 시드니로 그들을 태워가는 비행기의 통로 건너편 자리에서 열 살인 남동생 알렉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사촌 라일라가 프레시 워터 비치에서 우리를 만나 나한테 서핑하는 법을 가르쳐줄 거래!”

몇 년 전, 라일라는 엠마와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대규모 목장을 방문했었다. 라일라는 2주 동안 머물렀고, 맨리와 프레시워터 비치의 서퍼들과 서핑에 대한 그녀의 수많은 이야기는 엠마를 매료시켰다. 엠마는 심지어 라일라가 허리 길이의 풍성한 긴 금발 머리를 한 키 크고 호리호리한 유명한 호주 서퍼인, 샬리 핏츠기본스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엠마는 라일라가 자기에 서핑을 가르쳐줄 필수 기량을 갖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만약 엠마가 시드니를 방문하면 라일라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고, 지금 그녀가 거기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p.12~13

엠마는 온몸이 마구 흥분되어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엠마가 줄곧 하고 싶었던 일 하나가 서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 비행기가 시드니 공항에 착륙한

후, 가족들은 수하물을 찾고, 차를 빌려 휴가 동안 묵을 호텔로 몰고 갔다. 그들이 호텔 로



비에 들어섰을 때, 엠마가 그들을 기다리며 서 있는 라일라를 맨 먼저 발견했다.

“안녕!” 라일라가 엠마를 꼭 안았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 “서핑하는 법 가르쳐주겠다고 말한 거 기억하지?” 엠마가 다짜고짜 말했고, 그녀의 열의에 라일라는 웃었다. 엠마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서 거의 잠수도 없고 마구 커지는 기대감을 억누를 수도 없어서 얹치락뒤치락했다. 내일은 그녀가 서핑하는 법을 배우는 날이 될 것이고, 그건 꿈이 실현되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 후, 라일라가 당도하여 그 가족들이 해변에서 하루를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 즉 수건, 담요, 음식과 음료를 넣은 냉장 박스, 해변용 장난감,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것을 도왔다.

p.14~15



그들이 주차장에 다다랐을 때, 엠마는 라일라의 자동차 지붕에 장착된 두 개의 서프보

드를 보자 심장이 마구 뛰었는데, 보드 하나는 또 다른 보드보다 조금 더 짧았다. “더 작은 보드가 내 거야?” 엠마가 차로 뛰어가면서 물었다. 그녀는 매끄러운 서프보드에 손을 얹었다. “아냐.” 라일라가 고개를 내저었고, 그녀의 말총머리가 춤을 추었다. “롱

보드가 네가 타고 배우기 더 쉬울 거야. 그게 짧은 것보다 더 넓거든, 보이지?” 라일라가 더 긴 서프보드를 가리켰다.

“롱보드가 디 안정감을 주고, 유리섬유로 된 윗면 대신에 발포 고무로 된 윗면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최상의 선택이야.” “발포 고무로 된 윗면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엠마가 말했다. “네가 배우는 동안에 그 보드에 부딪힐 수도 있는 네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발포 고무로 된 윗면은 보드를 물에 더 잘 뜨게 하거든.” “보드들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야?” 알렉이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차 옆에 서서 서프보드들을 흥미롭게 쳐다보았다. “내겐 그것들이 둘 다 아주 커 보이거든.” “엠마의 롱보드는 길이가 약 2.13미터이고, 내 보드는 2미터가 좀 안 돼.”

p.16~17

프레시워터 비치까지는 자동차로 짧은 거리에 불과했지만, 엠마는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은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날이었다. 오늘 그녀는 서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자동차에서 해변으로 옮겼다. 라일라가 화장실 시설과 인명구조원 초소들을 가리키며 알려주었다. 그녀는 엄마와 아빠가 가져온 물건들을 놓을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을 도왔고, 해변에서 이리저리 서성거리는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에서 가까운 편안한 장소를 찾아냈다. 엠마는 겁잡을 수 없는 흥분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심호흡했다. 오, 그녀는 바다 냄새가 너무나 좋았다! 그건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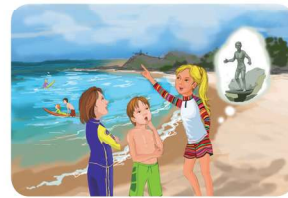
하고 먼지 많은 오지와는 아주 엄청나게 달랐으며, 비록 엠마는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자기 집을 아주 좋아했지만, 해변에 있는 편이 낫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바닷물의 툭 쏘는 냄새가 그녀의 콧구멍들을 가득 채우면서 싹둑거리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너머로, 파도들이 해안에 부딪



혔다. 엠마는 기뻐하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려 모래 속에 파묻었다.

p.18~19

엠마는 바다와 파도를 훑어보았다. 서퍼들은 보드를 타고 물을 저으면서 큰 파도들을 넘어 해변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엠마는 그들이 파도를 잡으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곧 그녀는 그들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 그녀 역시 보드 위에 서서 파도를 탈 것이었다. 오늘은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저길 봐.” 라일라가 엠마와 알렉에게 말했다. 그녀는 해변 저 멀리 갑 쪽을 가리켰다. “바다로 튀어나온 갑이 보이니? 비록 여기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저기에 듀



크 카하나모쿠의 실물 크기 동상이 세워져 있어. 너희가 그걸 볼 수 있도록 주 후반에

걸어가 볼 거야.”

“누구?” 알렉이 코를 찡그렸고, 엠마가 그에게 눈을 흘겼다. “듀크 카하나모쿠는 역사상 단연 가장 유명한 서퍼야. 그는 1890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났어. 올림픽 챔피언이었고, 1914년에는 이곳 프레시워터 비치에 와서 현지 사탕소나무로 자신이 직접 깎은 보드로 서핑 시범을 보였어. 그는 물구나무서기를 포함해서 서핑 묘기도 펼쳤단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현대 서핑의 아버지라고 불러.”

p.20~21

“맞아.” 라일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핑 역사에 관한 엠마의 지식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다수 사람은 서핑의 인기가 듀크의 방문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호주에 서핑을 들여왔다고 말하지만, 그가 서핑을 하기 몇 년 전에도 타미와 윌리엄 워커처럼 이곳에서 서핑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신문 기사는 호주 최초의 여성 서퍼 도리스 스터빈스가 일찍이 1911년에 서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도, 듀크는 서핑을 호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으로 바꿔

놓은 공을 인정 받고 있지. 그의 시범은 호주에서 그 스포츠를 대중화시켰고,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날 내가 여기 있었다라면 좋을 것 같을걸. 어쩌면 듀크 카하나모쿠가 이사벨 레덤 대신 군중들 속에서 나를 골랐을지도 모르잖아.” 엠마는 탄식하듯 말하면서 꿈꾸는 듯한 눈길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시범 날, 듀크는 군중들 속에서 나보다 겨우 두서너 살 더 많은 여자를 골랐어. 그는 그녀를 바다로 데려가 파도가 왔을 때 그녀가 시도를 도와줬고, 그들은 해변까지 돌아오는 내내 그의 보드를 타고 함께 서핑을 했어. 그걸 탠덤 타기라고 하잖아, 맞지?” 엠마가 확인을 바라며 라일라를 쳐다봤다.

p.22~23

“맞아. 그래도 우린 탠덤 타기는 못해.” 라일라가 말하면서 엠마를 향해 싱긋 웃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한테 서핑을 가르치는 거야. 준비됐니?” 엠마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우선, 네 보드를 모래에 놓으면, 내가 서프보드의 다양한 부분을 설명해 줄게. 보드의 더 뾰족한 끝부분이 노우즈이고, 뒤쪽은 테일이라고 불러. 레일은 서프보드의 가장자리이고, 테일



에서부터 노우즈까지 이어져. 데크는 보드의 전체

윗부분이야.

테일에 부착된 줄을 리쉬라고 부르는데, 이건 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때 보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네 발목에 묶는 거야. 질문 있니?” 라일라가 물었고, 엠마가 고개를 저었다. “래쉬가드를 입었구나. 잘했어.” “래쉬가드가 모래



와 바위로 인해 생기는 찰과상으로부터 상체를 보호해 줄 거야, 맞지?” 엠마가 말했다. “그리고 햇볕에 타는 것도.”

p.24~25

“그렇고말고,” 라일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보드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엎드려서 파도 타는 걸 연습해야 하는데, 이게 네가 몸동작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우선 여기 모래 위에서 해보자. 보드에 엎드려. 발가락이 보드의 테일에 닿도록 뒤로 쭉 뻗어. 물에 들어갔을 때 너무 앞쪽에 있으면 앞으로 고꾸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해. 너무 뒤에 있으면 파도가 보드 아래로 갈 거야. 연습을 통해 보드 위에서 네 몸무게에 맞는 정확한 자리를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테일에 네 발을 닿게 한 채 시작해. 네 가슴 높이에 있는 보드의 레일을 두 팔꿈치가 닿 날개 같은 자세로 빠져나오도록 해서 잡아.” 엠마는 라일라의 설명을 듣고 웃으면서도, 듣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엠마가 굽힌 팔꿈치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물었다. “완벽해. 이제



는 턱과 가슴을 들어 올리고 노우즈 너머를 바라봐. 서핑할 때는 계속 해변을 바라보게 될 거야. 즉, 네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가고 있는 곳으로 시선을 뒤야 해.”

p.26~27



엠마는 보드에 엎드리고, 팔과 손의 위치를 잡고, 턱과 가슴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했다.

그녀가 자신감을 느끼자, 라일라는 그녀를 바다로 데려갔다. “네 보드를 바다에 놓고 허리 정도 깊이까

지 물을 헤치며 걷는 동안 보드를 밀고 나가면서, 다가오는 파도들은 지나가도록 뛰어넘어, 해변을 향해 곧바로 다가오는 파도들을 기다려. 그것들이 네가 다기가 가장 쉬운 데니까. 그런 파도가 하니 오는 게 보이면, 연습한 대로 보드에 놓고 턱과 가슴을 들어 올린 다음에 해변까지 파도를 타고 돌아가는 거야. 엠마는 라일라의 지시에 따랐고, 모든 것을 연습했던 그대로 해냈다. 그녀는 자기를 모래 해변으로 내던지는 자기 밑에 있는 파도의 강력한 돌진이 너무 좋았고, 보드에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래쉬가드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p.28~29



약 30분 정도가 지난 후, 라일라는 또 다른 강습을 위해 엠마를 데리고 모래사장으로 돌아왔다. “네가 어느 쪽 발을 앞에 두는지 볼 수 있도록 모래사장에서 힘껏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멈춰봐.” 라일라가 말했다. 엠마는 라일라의 요구가 바보같이 들려서 고개를 저었지만 요구대로 했고, 자기가 멈추려고 미끄러질 때 왼발을 앞에 둔다는 것을 발견했다.

“너는 네 앞에 왼발을 밀어 넣었는데, 그건 네가 레귤러 서퍼라는 뜻이야. 만약에 오른발을 네 앞에 두었다면, 너는 구피 서퍼였겠지.” 라일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젠 네가 서핑을 하는 동안에 네 앞에 왼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 “내가 구피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엠마가 말하며 웃었고, 라일라도 웃었다.



p.30~31

“구피 서퍼인 게 잘못된 건 아냐. 그건 그냥 주어진

명칭에 불과해.” 라일라가 말했다. “모래에 보드를 내려놓고 이전처럼 앞드려서, 오른발을 돌려 발목 안쪽이 데크에 닿도록 해봐. 턱과 가슴을 들어 올리고, 다른 발을 가슴선까지 앞으로 미끄러지게 했다가 잡고 있던 보드를 놓고 일어나. 어깨와 팔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고, 약간의 체중이 앞 다리에 가도록 두 다리의 무릎을 굽혀. 그리고 명심할 건, 네가 타고 들어가는 해변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야.” 라일라가 활짝 웃었다. “이게 다야. 여기 모래의 보드 위에서 연습해봐, 그런 다음 우리는 바다에 들어갈 거고 넌 시도해보면 돼!”



엠마는 자신의 동작이 쉽고 확신이 들 때까지 연습했고, 바다에서 보드 위에 일어서기를 처음으로 해볼 준비가 되자 라일라에게 소리쳤다. 엠마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라일라가 엠마에게로 천천히 달려왔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것 하나는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떨어지는 방법이야. 보드에서 떨어지는 건 서핑의 일부인데, 보드에서 그냥 물로 뛰어들어선 안 돼. 보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로 감싸면서 서프보드에서 뒤로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라일라가 말했다. “알았어.”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럼, 파도를 잡으러 가볼까?”

2장. 서핑 서프라이즈

p.34~35

엠마는 자신의 서프보드를 잡고 라일라를 따라 바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물을 헤치고 걸으면서 서프보드를 밀었고, 그들의 허리 깊이에 갔을 때 라일라와 함께 멈춰 섰다. 라일라는 엠마에게 적당한 파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가르쳐주었다. 이 경우는, 똑바로 와서 곧장 해변을 향해 가는 파도였다. 엠마는

출발 실수와 넘어짐을 많이 겪으면서, 좌절감이 서서히 새어 나왔다. “포기하지 마.” 라일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넌 할 수 있어, 엠마.” 엠마는 다음 파도를 기다렸다. 그녀는 보드를 돌려서 뛰어 올랐고, 연습한 대로 신경을 써서 손과 발의 위치를 잡았다. 그녀는 앞발을 가슴까지 끌어당기고, 보드를 놓으면서 일어나 무릎을 굽히고 팔로 균형을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보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머리를 감싼 채 뒤로 떨어지기 전까지 거의 30초 동안 파도를 탔다. 라일라와 엠마의 나머지 가족들은 해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경중경중 뛰면서 박수를 쳤다. “우와, 우와! 해냈어, 누나!” 알렉이 모래사장에서 춤추며 소리쳤다.

p.36~37

엠마는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라일라는 물가에서 엠마를 만나기 위해 그들을 떠났다.



“굉장했어!” 엠마가 말했다. 아드레날린이 혈액 속에서 마구 솟구쳐 그녀는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었다. “오래 서 있진 못했지만, 연습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알겠어. 난 서퍼야! 라일라 언니, 나를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 말 마! 아주 빨리 좋아지는 걸 보니깐, 넌 서핑에 소질이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너한테 깜짝 선물이 하나 있어.” 라일라가 말했다.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달려오고 있는 저 금발 머리 남자 보이니? 그는 빨간 보디스를 입고 있어.” 엠마는 보디스가 보드용 반바지나 수영 반바지의 속어란 것을 알아들었다. 그녀는 눈부시게 강렬한 햇빛에 맞서 눈을 가늘게 뜨고 라일라가 가리킨 사람을 찾으려고 해변을 재빨리 훑었고, 그가 라일라에게 손을 흔들 때 그를 알아

보았다. 라일라도 미소를 지으며 열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p.38~39

“이쪽은 내 친구 월이야.” 월이 그들에게 당도한 후에 라일라가 말했다. “안녕.” 월이 말했다. “엠마, 맞지? 만나서 반가워.” “월은 내 서핑 강사들 중 한 명



이고, 경기용 서핑을 해.” 라일라가 말했다. “게다가, 지난 수년간 이곳 해변에서 열린 몇 차례 재현 행사에서 듀크 카하나모쿠 역도 말

았지.”

“이해가 안 돼.” 엠마가 어리둥절하여 눈썹을 찡그렸다. “1914년에 듀크 카하나모쿠가 여기서 시범을 펼치는 동안 그와 함께 탠덤 서핑을 펼치기 위해 군중 속에서 선택했던 열다섯 살짜리 소녀 이사벨 레덤에 대해 네가 알렉에게 들려주었던 얘기 기억하니? 월은 몇 차례 재현 행사를 위해 멋진 물구나 무서기와 여타 서핑 묘기들을 갖춘 듀크 역을 연기했지.”

p.40~41

“내가 속한 서핑 클럽에서는 매년 방문객들을 위해 시범 공연을 주관하고 있어.” 월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곳 프레시워터 비치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듀크의 시범을 재현하지.” “아!” 엠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우린 곧 예정된 재현 행사가 있는데, 라일라가 네가 내 연습을 도와주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어. 탠덤 서핑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월이 물었다. “우린 그 행사에서 내가 할 방식 그대로 연습할 거야.” 엠마는 깜짝

놀라 월을 뺨히 쳐다보고, 그녀의 심장은 흥분으로 마구 뛰었다. 그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라일라를 쳐다보



았고, 라일라는 웃으면서 엠마를 당겨 다정히 안아

주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엠마. 왜냐하면 넌 곧 호주 전역 최고의 서퍼들 가운데 한 사람과 괴물 같은 파도를 탈 거거든!” 라일라가 말했다.

p.42~43

엠마는 월이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해변 위쪽으로 사라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구명조끼와 서프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보드는 엠마가 라일라로부터 빌렸던 것보다 1미터 더 길었다. 월은 엠마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했고, 그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월은 입어야 한다고 그녀를 설득했다. “라일라 말이 네가 수영에 강하고 능하단데.” 월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도 구명조끼는 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서핑할 준비는 됐지?” 엠마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가자.” 월이 말했다. 월은 엠마 뒤에서 서프보드 위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은 함

께 손으로 물을 저으며 큰 파도들을 뚫고 나갔다. 그들의 서프보드가 라일라와 함께 서핑하면서 자신이 겁 없이 갔던 것보다 더 멀리 수면을 스치듯 나아가자 엠마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엠마는 그들 뒤쪽의 해변을 힐끗 쳐다보았고, 비록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각에서는 해변이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큰 파도들을 지나 물을 저어 나아갔으며, 그 파도들은 해변에 서서 관찰했을 때 보였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p.44~45



“이쯤에선 상어들 걱정을 해야 하나요?” 엠마가 겁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물었다. “얼마 전에 믹 패닝이 서핑 대회

중에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상어가 공격했을 때, 믹은 여기 프레시워터 비치가 아니라 남아프리카에서 서핑하고 있었어. 만약 여기서 상어들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상어들은 바다에 살고, 그건 서퍼들이 그것들과 맞닥뜨릴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 서핑 욕구가 꺾여서 안 되겠지. 지금 당장은 수면을 스치며 지나다니는 거대한 지느러미들이 보이지 않는데, 너는 보이니?” 월이 말했다.

“안 보여요.” 엠마가 말했다. “지금 나는 상어 걱정보다는 우리가 서핑할 완벽한 파도를 기다리는 게 더 큰 관심사야.” 월이 수평선을 주시하며 말했다. “파도가 오면, 난 보드를 돌려 일어날 건데, 내가 일어나면 너도 일어나야 해, 알겠지?” “제가 떨어지면 어찌죠?” 내면에서 흥분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는 엠마가 물었다. “네가 구명조끼를 필요로 할 일이 생기면, 그제 널 보호해서 물에 떠 있도록 해 줄 테지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우리가 서핑하는 동안 내내 내가 너를 꼭 잡고 있을 거고, 우린 곧장 해변까지 나아갈 거야.” 그는 다가오고 있는 파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엠마,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준비해!”

p.46~47



엠마가 보았던 그 어떤 파도보다도 큰 그 파도는 소용돌이치는 산더미 같은 물처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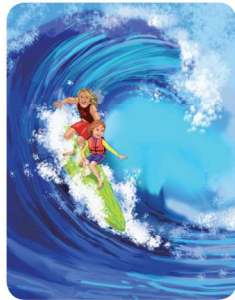
들을 덮칠 듯이 보였으며, 월이 해변을 향하기 위해 서프보드를 재빨리 돌려 그 파도를 그들 뒤에 놓이게 했을 때, 엠마는 겁에 질린 비명을 삼켰다. 서프보드가 물 위에 떠 있게 되자, 엠마는 즉각적인 공포로 폐에서 숨이 턱 막혀버렸다.

단 한 번의 빠르고 멋진 동작으로 월은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엠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녀의 구명조끼를 움켜쥐고 힘껏 끌어당겼다. “널 위한 순

간이야, 엠마. 일어나.” 엠마는 심호흡하고 라일라가 가르쳐주었던 것을 모두 떠올렸다. 그녀는 서프보드 위에 일어섰고, 월은 그녀가 균형을 찾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그녀의 구명조끼를 움켜잡았다.

p.48~49

잠시 후, 그 서프보드는 파도 꼭대기 위에 올려져 거기에서 흔들거렸으며, 엠마의 속이 요동치더니 목구멍까지 튀어 올랐다가 다시 돌덩이처럼 갈비뼈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절벽에서 떨어져 곧바로 땅에 부딪혀 죽는 것이 바로 이럴 것 같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일렁였지만, 그녀는 해변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두 팔을 벌렸다. “정말 대단한데, 서퍼질!” 월이 소리쳤다. “넌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야!” 엠마는 숨을 들이마셨으며, 이 독특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전율을 경험하는 데 열중했다. 그녀는 프로 서퍼와 2인조로 커다란 파도를 타고 있었으며, 그가 그녀를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불렀다! 나는 날고 있어! 엠마는 바람에 날린 짧은 머리 카락이 채찍질하듯 얼굴을 때리고 소금기 머금은 바다 물보라에 피부가 따끔거릴 때 이렇게 생각했다.

p.50~51

그녀의 두려움은 달아났고 열정에 압도당하며 솟구치는 환희에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날고 있어!” 그녀는 웃으며 소리쳤다. 엠마에게 그 파도의 궁극적 결말은 너무도 빨리 왔다. 그것은 바닷물과 물보라와의 이슬아슬한 충돌로 이어졌고, 서프보드를 해변으로 더 가까이 가져다주었다. 엠마는 바닷물과 파도의 물보라가 마구 튀는데도 이 탠덤 타기의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눈을 뜨고 있었다. 월은 보드를 조정해서 그들이 계속 서서 해변으로 곧장 타고 가도록 했다. “잘했어, 엠마!” 엠마의 가족이 그녀에게 갈채를 보냈다. “난 완전히 반했어!” 엠

마가 들뜨고 좋아서 두 눈을 반짝이며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바로 그 모래사장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쁨에 겨워 한쪽 발로 서서 빠르게 피루엣을 돌았다. “있잖아.” 라일라가 말했다. “이시벨 레덤이 듀크 카하나모쿠와 탠덤 타기를 한 후에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

“맞아, 정말이야.” 엠마가 말했다. “어서 빨리 바다로 다시 가고 싶어. 혼자서도, 그리고 월과도 서핑을 해 봐서 파도를 타는 게 얼마나 신나는 건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계속 서핑을 하는 것밖에 없어!”



p.52~53

“누군가가 우리를 말리려고 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네.” 라일라가 엠마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함께 그들의 서프보드가 모래사장에 놓여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월은 벌써 보드를 저어 큰 파도들을 지나갔네.” 엠마가 라일라에게 말하면서, 월이 허리 깊이의 바다에 서서 파도들을 살피고 있는 곳을 가리켰다. “월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봐. 그는 정말 대단해, 그리고 탠덤 타기는 내가 가져본 최고의 놀라움이었어. 이제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네가 아주 좋아할 줄 알았어.” 라일라가 말했다. “그리고 넌 거기에서 굉장했어.”



“바다로 가기 전에 딱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엠마가 말했다. “그래? 그게 뭔데?” 라일라가 물었다. 엠마의 두 눈 속에 있는 행복한 반짝임은 그녀가 활짝 미소 지으며 말할 때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기쁨과 아주 잘 어울렸다. “파도 잡을 시간이라고!”

눈 위에서 날아봐!

Fly on the Snow!

1장. 펠트베르크의 친구들

p.58~59



라일라 스미스는 장갑 낀 두 손을 허리춤에 얹고, 털모자를 귀까지 당겨쓰고 얼굴에는 미

소를 띤 채 눈 속에 서 있었다. 라일라의 친구 클라라 라인하르트가 미소로 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펠트베르크는 어떤 것 같아?” 클라라가 두 팔을 활짝 펼치며 물었다.

“아름다워.” 라일라가 눈 덮인 소나무들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검은 숲) 산에 오면 당연히 아름다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놀라울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그리고 또 뭐가 놀라운지 알아? 딱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프레시워터 비치에서 내 사촌 엠마에게 서핑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야. 마치 딴 세상으로 건너온 기분이 들어.” “독일이 호주로부터 먼 거리인 건 분명해.” 클라라가 말했다. “그리고 또 두 시간 후에 너는 너의 첫 스노보딩 강습을 받게 될 거야. 나도 네가 신고 있는 그 어그 부츠를 아주 좋아하지만, 슬로프로 가기 전에 스키 부츠로 갈아 신어야 할 거야.” “알아.” 라일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난 그것들을 벗기가 싫어. 내 어그 부츠가 너무 좋거든!”

p.60~61

“내가 너한테 필요할 거라고 말해 준 건 전부 썼니?” 클라라가 물었다. “네가 스노보딩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썼고, 확실하게 모두 챙겼어.” 라일라가 클라라



에게 장담했다. “부츠, 비니와 보호용 헬멧, 고글, 재킷, 조끼, 그리고 장갑을 가져왔는데, 모두가 스노보드용으로 만들

어진 것들이야.” 라일라가 어리둥절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뻔히 쳐다보았다. “내가 서핑할 때 필요한 건 보드, 리쉬, 래쉬가드나 잠수복이 전부거든. 서핑에 비하면, 스노보딩은 아주 많은 장비가 필요하네!” “옷을 겹겹이 끼입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해 줬던 거 기억하겠지? 옷은 넉넉히 가져왔니?” 클라라가 물었다. “그럼.” 라일라가 장난스럽게 클라라를 밀쳤다. “제일 안에 입을 걸로는 스노보드 양말, 보온용 바디셔츠를 가져왔고……” 라일라가 목소리를 확 낮춰 속삭였다. “……보온용 속옷도.” “속삭일 필요 없어.”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고, 그녀의 따스한 숨결은 차가운 공기와 부딪쳐 하얀 입김을 만들어 냈다.

p.62~63

“이 근방에서는 매년 이맘때 보온용 속옷을 입는 건 이상할 게 전혀 없어. 사실, 슬로프로션 그걸 입어야 해. 1월은 여기서 가장 추운 달이고, 오늘 산 아래는 섭씨 영하 4도야.” “상기시켜 주지 마.” 라일라는 몸을 덜덜 떨었다. “나는 겨우 일주일 전만 해도 비키니를 입고 햇살을 즐기면서 프레시워터 비치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섭씨 23도였던 말이야.” 그녀는 다시 몸을 떨면서 장갑 낀 손들을 울코트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 넣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클라라가 말했다. “그런 다음엔 너의 첫 스노보딩 강습을 위해 슬로프로 갈 거야.”

라일라는 클라라를 따라 그녀의 가족이 주말을 위해

방들을 빌린 호텔로 들어갔다. 두 소녀는 장갑과 모자를 벗었다. 클라라는 손가락으로 검은 미리가락의 짧은 뒷부분을 쓸어 내렸



고, 긴 머리를 굽게 땀은 라일라는 부러운 듯이 친구를 바라보았다. “네 짧은 머리 정말 좋아.” 그녀가 클라라에게 말했다. “나는 머리를 자를 만큼 용감하지 못하거든.” “스키 슬로프에서 용감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클라라가 말했다.

p.64~65



“이번 방학에 우리와 함께 지내자는 초대해 내가 받아들이기로 해서 기뻐. 언젠가는 네가 베를린에 있는 우리 집도 방문하면 좋겠지만, 우리

엄마가 이번 펠트베르크 스키 여행에 친구들 한 명 초대해도 된다고 하셨을 때 난 그게 너이기를 바랐어.” “네가 나를 초대해 줘서 정말 기뻐, 클라라. 여기 오니까 아주 행복해.” 라일라는 두 팔을 벌려 클라라를 포근하게 끌어안았다.

두 소녀는 클라라가 호주 시드니의 라일라네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체류하는 동안,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1년 후에 클라라는 독일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와 라일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전히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점심부터 먹자.” 클라라가 말했다. “그런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슬로프로 가서 스노보드 타는 법을 가르쳐줄게. 네가 서핑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스노보딩을 좋아하면 좋겠어.”

p.66~67

점심 식사 후, 두 소녀는 호텔 방으로 가서 스노보딩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맨 안쪽에 있는 보온용 긴 내복과 양말, 그리고 플리스 재킷과 보온용 바지로 구성된 두 번째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각각 이 위에 방수, 방풍, 그리고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동시에 땀이 배출되도록 만들어진 외피용 재킷과 바지를 입었다. 라일라는 추위

에 익숙하지 않아서 외피 위에 조끼도 입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스노보딩 부츠, 헬멧, 장갑을 착용했으며, 고글을 휴대했다. 라일라는 스노보드가 없었기 때문에 클라라는 그녀가 쓰도록 하니를 가져왔다.

클라라의 아버지가 스노보드들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뒤쪽에 실었다. 펠트베



르크는 자동차로 쉽게 스키 리프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클라라의 부모님들이 라일라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 독일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클라라는 라일라의 관심을 창밖에 있는 것들로 이끌었다.

p.68~69

“펠트베르크는 알프스 외에 독일에서는 가장 높은 산인데도 1,500미터가 채 안 되는 비교적 낮은 산악지방이야.” 클라라가 말했다. “바이에른 알프스는 얼마나 더 높은데?” 라일라가 물었다. “음, 추크슈피체는 3,000미터가 좀 안 되는데, 펠트베르크보다는 거의 두 배나 높아. 하지만 펠트베르크는 멋진 스키 휴양지이고, 초보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을 위한 완벽한 슬로프를 갖고 있어. 너도 곧 알게 되겠지만 말이야. 뿐만 아니라 멋진 남자애들도 있어!” 클라라가 부모님을 힐끗 쳐다보면서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라일라가 눈을 크게 뜨면서 웃었고, 클라라도 동조하며 웃었다.



“난 우선 스노보드를 타는 것부터 걱정해야 할 것 같아.” 라일라가 말했다.

“내가 오늘 실

제로 스노보드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배우기 어려워?” “내 생각엔 서핑이 더 어려워.” 클라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작년에 네가 프레시워터 비치에서 오후 한나절에 나한테 서핑을 가르쳐줬었으니까

나도 오후 한나절에 너한테 스노보드 가르치는 걸 하나의 도전으로 삼고 있어. 너는 기량이 뛰어난 서퍼니까 스노보딩이 어떤 면에서는 거저 얻는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되리라고 믿어.”

p.70~71

차량 몇 대만이 스키 리프트에서 가까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라의 아빠 라인하르트 씨가 SUV를 주차하고 차량 뒤에서 스노보드들을 꺼냈다. 그는 자신과 클라라의 엄마 라인하르트 부인의 스키를 꺼



냈고, 그들은 몇 시간 후에 아래쪽 숙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소녀들에게 작별의 손

짓을 했다.

“필 글뤼크!” 라인하르트 씨가 라인하르트 부인과 함께 스키 리프트를 향해 가면서 소리쳤다. “행운을 빈다!” “그럼 우리 맨 먼저 뭘 하지?” 라일라가 클라라에게 물었다. “나는 스노보드를 탈 준비가 되었어.” “좋아!” 클라라가 말했다.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거고, 친숙하게 들릴 수 있는 몇 가지를 하라고 네게 말해 줄게.” 그녀가 라일라에게 미소를 지었다. “자, 너는 레귤러 보더니, 아니면 구피 보더니?” “장난하는 거 아냐?” 라일라가 웃었다. “그건 서핑하고 같네. 내가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레귤러를 타는 거 너도 알잖아.”

p.72~73

“맞았어. 스노보딩도 똑같은 용어들을 사용해.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줄 건 스케이팅, 즉 한 발로 타기인데, 왜냐하면 그게 슬로프를 돌아다니고 스키리프트를 타고 내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땅이 평평한 바로 여기에서 연습할 거야. 축이 되는 발을 앞 바인딩에 올려놓고 스트랩을 채워.” 클라라는 라일라가 바인딩에 스트랩



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난 후에 자기 것에 스트랩을 채웠다. “이젠 스케이팅보드를 타는 방식과 비슷하게 자유로운 발을 사용해 밀면서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연습할 거야. 서핑에서와 같이, 네가 가고 있는 곳을 향해 앞을 쳐다봐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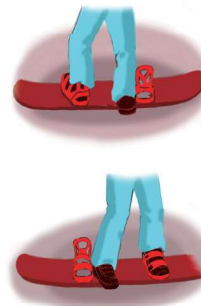
클라라는 그 동작을 실제로 보여주고는 이어서 라일라가 자신의 동작을 따라 하는 동안



기다려주었다. 클라라는 자신의 스노보드를 타고 빠르게 미끄러져 갔지만, 라일라는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감각을 익힐 때까지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p.74~75

“다음 단계는 자유로운 발로 미는 거지만, 그런 다음에 자유로운 발을 보드 위, 바인딩 사이에 올려놓는 거야. 멈추려면, 자유로운 발을 보드의 뒤쪽 엣지로 가져가 눈



속에서 발뒤꿈치를 끌거나, 아니면 그 발을 보드의 앞쪽 엣지로 가져가 눈 속에 발끝을 끌면 되는데, 어느 방법이든 네가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면 돼.” 클라라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라일라와 클라라는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찾기 전에 평지에서 스케이팅을 연습했다.

라일라는 축이 되는 발을 보드에 부착시킨 것이 어색하고 서핑과 아주 달랐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자신이 좋아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면서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다. “이제 스케이팅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너는 스키 리프트를 탈 준비가 된 거야.” 클라라가 말했다. “처음 타고 내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도와줄 거고, 비탈 코스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양쪽 바인딩에 스트랩을 채우는 방법과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런 후에는 스노보딩의 기초로 좀 더 들어갈 거고 너는 활강 연습을 할 수 있어.”

2장. 다정한 4인조

p.78~79

그들은 스키 리프트로 스케이팅해 갔고, 의자에 앉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라일라는 자신과 클라라 뒤에 줄을 서 있는 두 소년을 인식했다. 그녀는 그들이 소금과 후추

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라일라와 클라라처럼 한 아이는 금발이고 한 아이는 검은 머리였다.



검은 머리 소년이 미소를 지으며 라일라에게 손을 흔들었다. 라일라는 뺨이 달아올랐고,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그 아이가 보지 못하길 바랐다. 그녀는 재빨리 눈을 돌려 클라라가 스키 리프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했다. 클라라는 라일라에게 리프트는 그들 뒤에서 미끄러지듯 다가올 거고, 마치 식당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의자를 잡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앉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라일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던 소년이 라일라가 이해할 수 없는 독일어로 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결눈질로 빙긋이 웃는 클라라를 쳐다보았다. “너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저 애가 언제든 널 위해 의자를 잡아주면 행복하겠대.”

p.80~81



라는 놀라서 헉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의자에 털썩 앉

라일라의 뺨이 다시 달아올랐고, 리프트 의자가 그녀 뒤로 미끄러지듯 다가왔을 때 라일

고 말했다. 클라라가 안전바를 내리자, 의자는 순환하는 로프 케이블에 운반되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리프트에서 내릴 때가 되면 자유로운 발을 바인딩에 대고 일어나.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계속 무릎을 약간 굽히고, 멈추려면 발끝이나 발뒤꿈치를 끌면 돼.” 클라라가 말했다. 라일라는 클라라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관심은 경치에 쏠려 있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산비탈에 자라는 높이 치솟은 소나무들 꼭대기에 뚫린 질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햇살이 언덕을 적시고, 눈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흩뿌려진 듯 반짝거려서, 라일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경탄했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을 떨게 한 것은 흥분이었다.

p.82~83

“이제 명심해.” 리프트가 그들이 내릴 단계에 가까워지자 클라라가 말했다.

“자유로운 발



을 바인딩에 대고, 무릎은 굽히고, 끌면서 멈추는 거.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깐 겁먹지 마.” 스노보드에 한 발을 붙인 채 의자식 리프트에서 내리는 것은 라일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서, 그녀의 보드가 눈에 닿으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끌면서 멈춰.” 클라라가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고, 라일라는 약간 기우뚱거렸지만 넘어지지 않고 가까스로 멈춰 섰다. “잘했어!” 클라라가 말했다. “이제 두 발에 모두 스트랩을 채운 다음에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줄게.” 라일라는 클라라를 따라 바인딩이 눈 속에 있도록 자신의 스노보드를 뒤집어 놓았는데, 그녀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보드가 미끄러져 가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어, 두 소녀는 눈 위에 앉아 무릎을 굽히고 두 발을 바인딩에 놓고 스트랩을 채웠다.

p.84~85



“일어나려면 앞으로 뻗어서 보드의 엣지를 잡아. 그 손을 이용해 몸을 끌어 올리면서 다른 손을 이용해 몸을 밀어 올리는

거야. 알겠지?” 클라라가 말했다. 클라라는 가뿐히 그 동작들을 실연해 보여주었고, 라일라는 그녀를 따라 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보기보다 어렵네.” 라일라가 말했다. “일어나는 걸 내가 도와줄게.” 클라라가 라일라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거야. 그게 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두 발이 모두 자유로운 서프보드 타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야. 두 발이 보드에 스트랩으로 채워지는 이 스노보드의 방식이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네나가, 부츠도 부피가 커서 불편해.” 라일라는 이렇게 말했지만, 바로 그 다음 시도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슬로프를 유심히 내려다보고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클라라를 쳐다보았다. “저 아래까진 꽤 멀어 보이네.”

p.86~87

“걱정하지 마.” 클라라가 말했다. “먼저 네가 힐 슬라이딩으로 시작하게 하고, 그것에 편안해진 다음에



토우 슬라이딩으로 넘어갈 거야. 너는 순식간에 슬로프 아래로 내려갈 거야. 하지만 먼저 넘어지는 것에 대해 말해 줄게. 왜냐하면 너는 넘어질 거고, 다치지 않으려면 올바르게 넘어져야 하기 때문이야.” “서핑에서처럼 내게 와이프아웃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네.” 라일라가 말했다.

“맞아. 만약에 앞으로 넘어지면, 두 팔꿈치를 몸 가까이 가져오고, 손은 주먹을 쥐고, 무릎으로 넘어진 다음 팔뚝으로 넘어지는 거야. 뒤로 넘어질 때는 엉덩이로 떨어지겠지만, 충격 분산을 돕기 위해 곧바

로 드러누워. 그리고 뒤로 넘어질 때는 보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치켜들어서 다리와 함께 치우는 거



야. 허벅지 뒤를 손으로 움켜쥐면 그 무게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질문 있니?” “없어. 힐 슬라이드를 연습하자. 탈 준비가 됐거든!”

p.88~89

“너는 이미 서핑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의 자세를 바꾸고, 가고 싶은 곳으로 보드를 향하게 하는 법을 이해하고 있어. 물론, 스노보딩은 다르지만, 일부 기술은 아주 유사하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클라라가 말했다. “힐 슬라이딩을 하려면, 발끝이 슬로프 아래를 향하도록 전방을 바라보고, 보드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체중을 뒤쪽의 발뒤꿈치로 옮겨. 알겠니? 발끝을 더 들어서 발뒤꿈치를 더 누르면 누를수록, 너 더 느리게 갈 거야.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무릎과 엉덩이를 약간 굽히고, 허리는 세우고, 손은 몸 옆에 둔 채 보드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 그래!”



설명을 들은 대로 라일라가 미끄러지는 스노보드를 조종하자 클라라가 힘을 북돋아주었다. “앞뒤로 미끄러지려면, 손을 가고 싶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체중을 약간 더 그쪽 방향으로 옮겨. 그래, 바로 그렇게. 해냈어!” 그 소녀들은 두 명의 스노보더가 그들 옆으로 미끄러져 다가오자 멈춰 섰다. 그건 바로 의자식 리프트에서 그들 뒤에 줄 서 있었던 두 소년들이었는데, 라일라는 검은 머리의 잘생긴 소년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을 때 자신의 뺨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안녕.”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은 에릭이고, 내 친구는 펠릭스야.” “안녕.” 펠릭스가 말했다. 그는 클라라에게 미소를 지었고, 클라라는 자신과 라일라를 소개했다.

p.90~91



“우리는 네가 영어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고,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아맞혀

보려고 했어. 그런데 넌 우리가 듣기에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호주 사람 같기도 했어.” 에릭이 말했다. “응, 맞아. 난 미국 출신인데, 일곱 살 때 가족들과 호주로 옮겨 왔어.” 라일라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추축하기로는 너는 이번에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것 같은데.” 에릭이 말했다. “너는 힐 슬라이딩을 배우는 중이고, 내 친구 클라라가 너를 아주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럼, 우린 너희를 더는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 어쩌면 슬로프 아래에서 너희들을 만날지도 모르겠다.”

라일라와 클라라는 에릭과 펠릭스에게 작별의 손짓을 보냈고, 두 소년은 고난도의 묘기를 부리며 그 소녀들에게 보란 듯이 과시하면서 쏜살같이 경사로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뭐랬어, 여기 잘생긴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 에릭과 펠릭스가 커브를 돌아 사라지자 클라라가 말했다. “힐 슬라이딩을 좀 더 연습하고 싶니, 아니면 토우 슬라이딩을 배울 준비가 됐어?” 라일라는 토우 슬라이딩 강습에 동의했고, 클라라는 활짝 웃었다. “좋아, 근데 먼저 너한테 구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하는 대로 해봐.”

p.92~93



클라라는 슬로프 아래를 향한 채 눈 위에 앉았다. 그녀는 드러누웠다가

배쪽으로 구르면서 자기 위로 보드를 잡아당겼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녀는 이전과 반대 방향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스키 비탈 코스의 꼭대기를 향하고 있었다. 라일라가 클라라를 따라 했고, 두 사람은 모두 아래로 내려가는 슬로프를 등지고 서 있었다.

“토우 슬라이딩을 하려면, 눈으로부터 떨어지게 발뒤꿈치를 들고 발끝을 눈 쪽으로 밀면서 속도를 조

절하거나, 더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발뒤꿈치를 눈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면 돼. 앞뒤로 미끄러지는 걸 연습해봐. 가고 싶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쪽을 향해 체중을 조금 실으면서 먼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돼. 네가 편안해질 때까지 연습해서 준비되면, 우린 보드를 타고 경사로 아래로 곧장 내려갈 거야.” “스노보딩의 요령은 균형인 것 같아.” “맞았어.”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p.94~95

라일라는 토우 슬라이딩을 연습했고, 발뒤꿈치와 발끝 기술을 모두 이용하여 보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익혔다. 그녀는 체중을 옮기면서 다양한 몸동작들을 실험해 보았다. 그녀가 연습하는 동안, 에릭과 펠릭스는 여러 번 더 보드를 타고 경사로를 빠르게 내려갔고, 그 후에 또다시 소녀들에게 미끄러지며 다가왔다. “타고 내려갈 준비가 됐니?” 에릭이 라일라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고글을 눈에서 떼서 이마에 걸치며 물었다. “그런 거 같아.” 라일라가 말했다. 그녀는 클라라를 쳐다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우리 해 보자!”



“그럼, 좋아.” 클라라가 말했다. “축이 되는 발에 체중을 더 실으면서 출발

하고, 앞에 있는 손과 어깨는 슬로프 아래쪽을, 그리고 뒤에 있는 손과 어깨는 슬로프 위쪽을 향하도록 해.”

p.96~97

“나를 잘 봐.” 펠릭스가 말했다. 그는 클라라가 라일라에게 해 준 설명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갔다. “너는 똑바로 타고 가기 때문에 원한다면 발뒤꿈치와 발끝에 힘을 주지 않고 보드를 반듯하게 미끄러지도록 할 수 있어. 알겠니?” 에릭



도 펠릭스가 했던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고는 눈을 차올리면서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갔

다. “재들 또 잘난 척하고 있네.” 클라라가 피식 웃고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그렇긴 해도 귀엽잖아.” 라일라가 미소를 지었다. “난 이제 멋들어지게 나뽕굴어 창피를 당하는 일 없이 스노보드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가도록 시도해 봐야겠어.” “내 생각엔 스노보딩이 서핑보다 쉬워. 서프보드 위에서는 일어서기가 힘들거든!” 클라라가 말했다. “네가 나한테 서핑을 가르쳐줬을 때, 내가 한 거라곤 마치 와이프아웃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넌 배웠잖아.” 라일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도 배울 거야.” 그녀는 고개를 맞춰 끼고 심호흡을 했다. “가사!”

p.98~99



라일라는 그녀의 스노보드를 슬로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이 배우고 연습했던

대로 기술들을 이용하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속도를 높였다. 슬로프 아래로 스노보딩을 할 때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마치 날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내리막 비탈 코스의 맨 아래까지 활강했을 때 자신이 매우 대견스러웠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느리게 내려왔지만, 훌륭한 첫 성과였다고 생각했고, 다음 활강 때는 더 빨리 하강하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에릭과 펠릭스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라일라와 클라라에게로 스케이팅해 왔다. “첫 활강치고는 아주 잘하던데.” 에릭이 라일라에게 말했다. “모두 함께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다시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거 어때?” 라일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클라라를 힐끗 쳐다보았다. 네 사람은 함께 스키 리프트를 향해 스케이팅해 갔고, 라일라는 아직 초보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자신의 자신감과 기량이 늘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p.100~101



“난 스노보딩이 서핑과 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리프트에 앉고 그 의자가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후에 라일라가 말했다. “서핑할 줄 안다고?” 에릭의 검은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 “응. 난 시드니에 살고, 시도 때도 없이 맨리와 프레시워터 비치에서 서핑하지만, 스노보딩은 꽤 다르면서도, 동시에 약간 비슷하기도 해.” 라일라가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모순처럼 들린다는 건 알지만, 달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서핑이 훨씬 더 어려워.” 클라라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우선, 서핑에서는 큰 파도를 너머까지 데려다주는 의자식 리프트가 없어. 거기까지 직접 손으로 저어 가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지치는 일이야. 그리고 기상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근데 그것도 경고 없이 일어나진 않고, 산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 곳에 서의 스노보딩과 달리, 환경이 끊임없이 변해. 서핑에서는 제대로 타는 것이 파도가 올 때 겨우 몇 초뿐이지만, 스노보딩에서는 온종일 산을 내려올 수 있어. 게다가 마침내 서프보드에서 처음으로 일어날 때는, 마치 흔들거리는 절벽 끝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클라라가 말했다. “내 생각엔 스노보딩이 통제를 더 할 수 있어.”

p.102~103

“그리고 산에는 헤엄치는 상어들이 없잖아.” 펠릭스가 농담을 던졌고, 그들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눈사태가 있지.” 에릭이 말했다. “몇 년 전에 여기 펠트부르크에서 백컨트리 스키어 두 사람이 다쳤어.” “여

기? 바로 이 슬로프에서?” 라일라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아니,” 클라라가 고개를 저었다.



다. “그 사람들은 활강 코스를 벗어났었어.” 라일라의 눈썹이 의아해하며 찡그려졌을 때 모이자 클라라가 설명해 주었다. “백컨트리 스키어들은 표시된 구역 밖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고, 피스트는 표시된 스키 슬로프야. 그 사람들이 눈사태를 만났을 때



그들은 표시된 스키 코스를 벗어나 있었다는 거지.” “그럼 말해 줘, 라일라. 두 가지를 모두 해 봤으니까 이제 어느 쪽이

너 좋니, 서핑이야 아니면 스노보딩이야?” 의사식 리프트가 그들을 슬로프 꼭대기에 옮겨다 놓았을 때 에릭이 물었다. 그들은 일어나 리프트 밖으로 스케이트를 했다. “말할 수가 없어.” 라일라가 그에게 말했다. “난 일곱 살 때부터 서핑을 했고 그건 타고난 거라 바다와 서프보드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

p.104~105

라일라는 발뒤꿈치를 사용하여 전진을 멈추고 잠시 정상에서의 숨 막힐 듯한 경치, 즉 파란 하늘, 하얀 눈, 그리고 위풍당당한 나무들의 파노라마 같은 광경을 찬찬히 바라보았는데, 그녀에게 익숙한 광활한 바다와는 아주 달랐다. “하지만 이젠 스노보드 타는 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클라라가 재촉했다. “이것도 아주 좋아.” 라일라는 친구에게로 몸을 돌려 환하게 웃으며 체중을 옮겼다. 스노보드가 슬로프 아래로 미끄러져 속도가 불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율과 함께 서핑한 후에 엠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말이 서핑에만 사실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무 꼭대기들에 대고 소리쳤다. “나는 완전히 반했어!”

